

『나사의 조임』과 읽기 전략

이 정 호

1. 시작하는 말

헨리 제임스의 중편 소설 『나사의 조임』은 그것이 책으로 1898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책으로 출간되기 전에 잡지에 연재됐었음) 이래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부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몇몇의 장편 소설들은 그들에 대해 논한 출간된 비평 논문의 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소설(『나사의 조임』)을 능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편 소설 중에서는 이 소설이 단연 왕이다. 영어로 쓰인 비평의 수만 세어도 책과 논문이 500편이 훨씬 넘는데, 나는 숫자를 세다가 지쳐서 그 정도에서 세기를 그만두었다. 이 소설이 10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므로, 이 소설에 대한 비평을 다 읽으려면 아마도 평생을 읽어도 끝이 없을 것이다.¹⁾

이 같은 부스의 말은 이 소설이 출간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작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들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같이 끈질긴 이 소설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드러낸다.

『나사의 조임』은 비평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카멜레온적인 텍스트로 남아 있다. 이 소설은 어떤 종류의 읽기를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추어 그 색깔을 달리해 왔다.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소설은 포우의 전통을 따르는 고딕 소설이 될 수도 있고, 호손의 전통을 따르는 낭만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며, 하울스의 전통을 따르는 사실주의적인 소설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성적 억압을 다룬 프로이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선과 악에 대한 알레고리일 수도 있으며, 살인과 사기에 관한 탐정 소설일 수도 있고, 어린애들의 양육에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소설일 수도 있으며, 이 소설을 쓴 작가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1) Booth, p. 163.

수도 있다. 이 소설은 유명 연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관해 소설가가 가진 지식을 드러낼 수도 있으며, 이런 지식을 그 자신이 배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작가가 살던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 그가 동의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소설은 마르크스적인 의견 표시일 수 있으며, 페미니스트적인 의견의 개진일 수도 있고, 동성애적인 의견의 표출일 수도 있다. 이처럼 『나사의 조임』에 대해 출간된 해석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그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소설의 작가의 이름이나 소설 제목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단지 「블라이 장원의 미스터리」라고만 써도 많은 독자들에게 이 논문이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조임』에 대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²⁾

위의 두 인용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대단히 많은 독자의 관심의 대상이 돼 왔으며, 또한 읽기에 따라 그 색깔을 달리하는 텍스트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설블리 이 소설 읽기에 착수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비평만으로도 이 소설에 대한 비평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아니요'이다. 이 소설이 이처럼 많은 해석과 비평을 생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면, 이는 곧 이 소설에는 소진되지 않는 생명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소설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알튀세르와 그람시의 이론으로 읽기

『나사의 조임』을 읽는 데 있어 알튀세르와 그람시의 이론에 유의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우선 알튀세르를 보기로 하자.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를 경직되고 억압적인 통치 장치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억압적 국가 장치(repressive state apparatuses, RSAs)와 이념적 국가 장치(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SAs)로 양분한다. 억압적 국가 장치는 힘에 의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장치로 이러한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형사(刑事) 제도, 경찰, 그리고 군대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 제도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일종의 하드웨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념적 국가 장치는 이 같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장치

2) Beidler, "About This Volume," in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p. viii-ix.

와는 달리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이념적 장치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거의 모든 장치들이 이념적 국가 장치에 속하는 것으로, 종교, 법제도, 교육, 가정, 문화, 그리고 의사소통 체계 등이 이념적 국가 장치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장치들이 이념적 국가 장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념적 국가 장치의 불가시적인 성격에 대해 이글튼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교회에 가는 일, 투표하는 일, 여성으로 하여금 문을 먼저 통과시키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데올로기는 내[이글튼]가 영국 왕정에 대해 지니고 있는 깊은 충성과 같은 의식적인 기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차를 몰고 있고 나의 무의식 속에 타인과 내 자신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까지도 포괄한다.³⁾

이렇게 볼 때 이데올로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작동 시키는 원리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이기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소설에 나오는 여자 가정교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고아인 마일스와 플로라를 가정에서 돌보고 교육시키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녀는 이들에게는 대리모이며 또한 교사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의 역할은 알튀세르가 말하는 이념적 국가 장치로서의 가정과 학교라는 장치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인 셈이다. 따라서 사회[또는 이데올로기]는 그녀를 이러한 이념적 장치에 봉사하도록 호명(呼名, *interpellation*)한 셈이다. 알튀세르는 호명이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인 개인을 구체적인 주체로 호명한다.”⁴⁾ 이렇게 되면 “사회는 나에게 비인간적인 구조가 아닐뿐더러 사회가 하나의 ‘주체’로서 나를 개인적으로 호명하게 된다.”⁵⁾ 따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가정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의 의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맡겨진 일이라든가 한 것처럼 개인적인 소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 중 이상하게도 두 명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하나는 이 장원의 주인이지만 런던에 살고 있는 남성 인물이며, 또 다른 하나는

3) Eagleton, p. 172.

4)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p. 245.

5) Eagleton, p. 172.

4 □ 이정호

여자 가정교사이다. 우리는 왜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을 작자가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남자주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작자는 그에게 신비감을 주고, 이러한 신비감은 그의 위력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는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의 위력은 더욱더 높아진다. 그는 가부장적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더 가중된다. 가부장제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두려움으로 작동하는 체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부재하는 남자 주인의 위력은 그의 익명성에 의해 더욱더 공고해지는 셈이다.

남자 주인의 익명성이 가부장적 위계질서 안에서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여자 가정교사의 익명성이 그와 똑 같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 하면 가정교사의 행동거지가 모두 자세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가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익명성은 곧 그녀 자신의 신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녀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마치 하나의 법적인 문서에 서명이 빠짐으로서 그러한 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익명성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주체로서의 그녀의 위치와 무게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자녀 교육 및 이데올로기의 보존자로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단지 남성의 부속물이거나 성적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젊은 여자에게 열려 있는 사회 진출의 길은 가정교사라는 직위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는데, 여자 가정교사의 위치는 하인보다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상류층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

익명의 여자 가정교사와 대조되는 인물로 우리는 그로우스 부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교육 수준이 낮으며, 하녀이기 때문에 가정교사보다는 계급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공공연히, 그리고 당당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집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교사의 행동 반경이 좁은 것과는 달리 가정부인 그로우스 부인의 책임 영역은 훨씬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때 그로우스 부인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교사보다는 오히려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교사의 위치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그녀가 주인에게 보인 성적인 관심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블라이 장원에 오기 전 주인과 면담한 적이 있다. 그녀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그와 결혼이 가능할 만큼 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애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그녀가 그를 마주 대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또한 그가 그녀에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하등의 언절이나 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연정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그는 자신에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편지로 보고하지 말 것을 가정교사에게 분명히 언명한 터에 그녀의 이 같은 연정은 자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그녀가 주인에 대해 연정을 느끼는 것은 그녀 자신이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스스로 남성의 종속적인 부속물이 되기를 자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 하에서는 미혼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아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는 대단히 제약적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이 낮은 여성이 신분이 높은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경우는 없지는 않았으나,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가정교사가 주인에게 품고 있는 연정(?)은 망상이거나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인 망상을 가정교사가 품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면 당시의 사회 구조가 여성에게 대단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된다.

가정교사가 주인에 대해 품고 있는 이 같이 망상적인 연정은 그람시가 주장하는 헤게모니 이론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람시가 주장하는 헤게모니는 부르주아가 노동계급에 대해 행사하는 통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통제는 단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사람시는 지적한다. 따라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사회 체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폭력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의 동의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동의는 단지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정교사가 주인에 대해 품고 있는 망상적인 연정은 주인으로 대표되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종의 광적(?)인 동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사회 체제가 경직되고 억압적일 수록 오히려 이에 대한 동의 또한 더욱 더 광적일 수 있다. 가정교사가 주인에게 가지고 있는 거의 비정상적인 연정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때 좀 더 설득력 있는 참조 틀을 가질 수 있다.

3.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 읽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가정교사가 목격한 것으로 돼 있는 두 명의 유령에 대한 해석이다. 그 하나는 블라이 장원의 하인으로 있던 키타라는 남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임 여자 가정교사이다. 이들은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현존 인물이 아니지만, 이들은 마일스와 플로라와 접촉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가정교사는 믿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정교사만이 이 유령들을 목격할 뿐,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부인 그로우스 부인도 이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논란의 핵심은 우선은 [1] 유령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위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령의 존재가 사실이 아니라면 [2] 가정교사는 정신이상자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 중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문제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된다.

이 소설을 읽는 데 있어 논란의 중심이 이처럼 두 가지의 핵심 사항으로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소설을 읽는 방법에 대해 부스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이들은 [1] 곧이곧대로 읽기, [2] 뼈뚫하게 읽기, 그리고 [3] 수수께끼(퍼즐)처럼 읽기이다.⁶⁾ 이러한 세 가지의 읽기 방법은 유령이 실제로 존재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화자의 상상의 산물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이 소설을 곧이곧대로 읽을 경우 독자는 이 소설에 나오는 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유령의 존재를 글자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뼈뚫하게 읽을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뼈뚫하게 읽기를 할 경우 “가정교사가 본 유령은 그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의 표출이며, 그녀의 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녀가 느끼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⁷⁾ 그러나 이 소설을 수수께끼처럼 읽을 경우 그것은 위의 두 가지 읽기와는 좀 다

6) Booth, p. 169.

7) Markley, p. 200.

른 읽기가 된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제임스는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존재하지 않기도 한 묘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작중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특히 서술자의 신념과 행동을 생각해 보도록 부추긴다는 점"을 알게 된다.⁸⁾

유령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은 제임스가 이 소설을 쓰던 19세기 말에는 아주 중요한 논쟁의 주제이긴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는 괴기 소설의 주제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논의 될 정도의 주제가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지로 그 입장이 거의 정리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유령의 존재에 대한 논쟁이 거의 그 중요성을 상실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읽기 방법은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의 읽기 방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읽기를 혼합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정교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갈등, 성적 인식,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책임에 대한 중압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된다.

4. 『나사의 조임』의 심리적 읽기

이 소설이 출간되고 나서 이를 읽는 방법의 대세는 유령의 존재 여부가 주관심사였다. 이런 비평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은 에드먼드 윌슨이었다. 이 같은 읽는 방법의 변화는 그가 발표한 「헨리 제임스의 모호성」이라는 논문에서 드러난다.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헨리 제임스의 모호성에 대한 논의는 『나사의 조임』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소설은 [중략] 우리 눈에 보이는 명백한 공포 뒤에 또 다른 공포를 숨기고 있는 듯하다. [중략]. 이 이론에 의하면 이 소설의 서술자인 가정교사는 성적인 억압에 기인하는 신경증을 가지고 있으며, 유령은 진짜 유령이 아니라 가정교사가 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 같은 윌슨의 주장은 이제까지의 비평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유령의 존재에 대한 논쟁에서 탈피하여 가정교사의 심리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모호성에 유의함으로써 소

8) Markey, p. 200.

9) Wilson, p. 115.

설 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전기(轉機)는 이제까지 이 소설을 읽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전환점이 된 셈이다.

윌슨의 이러한 주장이 이 소설을 읽는 방향의 큰 흐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 바이들러의 「가정교사와 유령」이라는 논문은 이 소설이 출간됐을 당시의 독자들이 이러한 가정교사의 신경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했는가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논문이다. 바이들러가 제시한 자료는 1898년 10월 28일에 W. H. 마이어스가 그의 친구인 올리버 로지에게 쓴 편지이다. 마이어스는 영국의 심리 연구 학회의 창립 회원이며 또한 이 학회의 가장 적극적인 연구자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령의 출현에 대해 조사하는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마이어스와 헨리 제임스는 친구이기도 했다. 마이어스가 『살아있는 사람의 유령』이라는 책을 출간하자 제임스는 이 책을 사서, 그가 후에 『나사의 조임』을 쓸 때에 이를 참고하기도 했다.¹¹⁾ 이 소설이 잡지에 연재가 끝나고 책으로 출간된 것은 같은 해 10월 5일이었다. 마이어스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헨리 제임스는 전원생활을 묘사한 아주 박진감 넘치는 소설을 썼네. [중략].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착하고 귀여운 두 명의 아이들일세. [중략]. 어린 여자 아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창녀 같은 이전의 여자 가정교사에 대해 동성애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네. 그리고 (학교에서 외설스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퇴학을 당한) 사내아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행실이 나쁜 하인의 유령에 대해 동성애적인 욕망을 느끼고 있네. 이러한 이야기를 (착하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여자 가정교사가 박진감 있고 진지하게 서술하고 있네. 하인은 예전의 여자 가정교사를 유혹했는데, 그녀는 임신 중에 죽었고, 하인도 자신이 동성애의 욕망을 충족시키던 남자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확실하네. 이 같이 간단한 이야기의 기동 중거리를 기초로 하여 놀랄만하고 비극적인 장면이 축조되었네. 이 유령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아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성적인 욕망일세.¹¹⁾

마이어스의 이 편지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편지가 중요한 이유는 마이어스가 이 소설이 출간됐던 당시의 영국에서 유령의 출현에 대해 직접 간여하여 조사하던 인물이라는 점이

10 Beidler, "The Governess and the Ghosts," p. 97.

11 Beidler, "The Governess and the Ghosts," p. 96.

다. 따라서 그가 지금의 여자 가정교사를 “착하고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다”고 묘사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하자(瑕疵)가 없을 뿐더러 또한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흠결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가 죽은 하인과 여자 가정교사의 유령이 실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비과학적이긴 하지만, 그의 유령의 실재에 대한 이런 견해가 나온 19세기 말에는 유령의 출현이 거의 사실로 여겨지던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이어스가 아무리 과학적인 성향이 있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살던 시대의 통념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를 간과한다면 마이어스의 이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죽은 하인과 여자 가정교사가 동성애자였으며, 또한 마일스와 플로라가 이들과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가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마이어스가 제임스가 살던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는다면 이 같은 그의 지적은 우리가 이 소설을 읽는데 있어 중요한 참조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이 같은 마이어스의 의견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가 퀸트와 미스 제설이 아이들과 동성애적인 관계,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들이 어린 아이들과 소아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동성애적인 관계가 성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더라도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일 터인데, 퀸트가 마일스와 남색(男色) 행위를 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퀸트와 마일스와의 남색 행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더 큰 이유는 이들 사이 존재하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때문이다. 퀸트의 남색 행위는 단지 성적인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블라이 장원의 사회적인 위계질서 자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미스 제설과 플로라와의 동성애적인 관계 역시 이런 위계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동성애적 관계가 이 소설에 분명히 묘사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소설 읽기를 더욱 더 모호하게 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이 소설의 흥미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가정교사가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들의 유령이 출현하여 아이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유령의 출몰을 목격한 사람은 가정교사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령이 나타난 것은 단지 가정교사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왜 가정교사가 유령이 출현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녀

의 우려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교사는 햄프셔 지역 목사의 딸이며,¹²⁾ 나이는 이제 갓 20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성이다. 그녀의 이 같은 성장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녀는 성적으로 순수하고 순진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성(性)에 대해 보수적이며 경직된 견해를 가진 전형적인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처녀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녀는 이전에 가정교사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맡은 아이들에 대해 대단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가정교사에 대해 알고 있는 더글러스가 이 소설의 도입부에서 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그녀(가정교사)는 내 누이동생의 가정교사였답니다”고 말하면서, “내가 여태 알았던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라고 마음을 털어 놓는다.¹³⁾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정교사에게 유령의 출현은 예상 밖의 일일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들이 아이들과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된다.

블라이 장원의 가정교사가 된 후 그녀는 남자 유령의 출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이며 또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 후 그녀는 가정부인 그로우스 부인에게 물어 그가 본 유령이 죽은 하인인 쿤트였음을 알게 된다. 쿤트는 전임 가정교사였던 미스 제설과도 성적으로 불미스런 관계를 가졌었음을 그로우스 부인은 그녀에게 알려준다. 그로우스 부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다음과 같다. 미스 제설과 쿤트는 둘 다 악명이 높았다. 미스 제설은 숙녀였지만, 쿤트는 “개”였다.¹⁴⁾ 여기서 그로우스 부인이 그를 개라고 부른 것은 그의 성적인 성향과 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는 신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했는데, 이것은 미스 제설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그로우스 부인은 말한다.

쿤트와 미스 제설과의 관계가 성적으로 난잡한 것이었다면, 그와 마일스와의 관계는 분명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소아성애의 관계였다고 가정교사가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 같은 사실은 가정교사와 그로우스 부인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드러난다.

“마일스가 그 사람[쿤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게요?”

12)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 25.

13)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 23. 최경도 10쪽.

14)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 57.

“정말이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그로우스 부인)이 내게 말했죠. 그들이 ‘절친한 친구’였다고.” [중략].

“그건 쿼트 혼자만의 망상인 걸요. 아이를 회롱하고 망쳐 놓았으니.”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덧붙였다. “쿼트는 정말 제멋대로 굴었거든요.” [중략].

“내 아이[마일스]에게 제멋대로 굴었던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랬죠!”¹⁵

그로우스 부인과 가정교사의 이 같은 대화로 미루어 보아 쿼트와 마일스와의 관계는 소아성애적 관계임을 추론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쿼트와 마일스와의 사이에 이처럼 상상을 불허하는 패륜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가정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내 정신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즈음 나는 상황이 내게 요구한 영웅심이 놀랍도록 솟구친 데서 생생한 환희를 맛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맡은 일이 훌륭하고도 어려운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이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바로 적절한 장소에서—나쁘지 않겠는가! 나의 일을 막중하고도 단순하게 여긴다는 것이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칭송하기까지 했다고 고백 하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으며, 아이들의 가련한 처지가 갑작스레 너무나 뚜렷이, 이들에게 헌신하려는 내 마음에 깊고 지속적인 아픔이 되었다. [중략]. 아이들에겐 나밖에 없었고, 나에겐 그들만이 전부였다. [중략]. 나는 보호막이 되어 아이들 앞에 서야 하며, 내가 지켜볼수록 이들이 위험에 적게 노출되리라.¹⁶⁾

이 같은 가정교사의 다짐은 대개의 경우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가지는 마음가짐이다. 그녀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대리모로서의 가정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책임 하에 있는 아이들을 어머니의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사인 그녀는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데올로기를 가정에서 지키며 교육하는 파수꾼임을 자처하는 셈이다.

15)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p. 49-40. 최경도 64쪽.

16)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p. 51-2. 최경도 68쪽.

가정교사는 퀴트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가를 그로우스 부인으로부터 자세히 들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의식을 더욱 더 굳히게 된다.

이 사악한 시간은 어느 겨울 새벽, 일을 나가던 일꾼이 마을로 뻗은 길 위에서 피터 퀴트가 들쳐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종말이 찾아 왔다. 이 재앙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의 머리에 있던 눈에 띄는 상처가 원인이었고, 그 상처는 술집에서 나오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 얼음 깔린 가파른 비탈길에서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버린 모습에서 — 결국 따져 보니 사실이었지만 — 유추되었다. 실제로 수사와 무수한 입방아 끝에 모든 것이 해명되었지만, 한밤에 술에 취해 잘못 접어든 얼음 깔린 비탈길이 많은 사실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삶에는 괴이한 행로와 위험, 남모르는 혼란과 의심할 여지없는 해악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것이 더욱 많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¹⁷

제임스는 퀴트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이 남자의 삶에는 괴이한 행로와 위험, 남모르는 혼란과 의심할 여지없는 해악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퀴트가 술집에서 단지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한다. 이는 그가 “이것이 더욱 많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지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퀴트가 추운 겨울 길에서 객사한 것은 자신이 지은 추악한 죄에 대한 천벌인 셈이다.

5. 가정교사의 무의식의 투사, 그림자, 그리고 분신

이제 우리는 가정교사가 본 유령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무의식 속에 억압돼 있던 성적 욕망이 두 남녀에게 투사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녀가 본 퀴트의 유령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녀가 본 유령은 실재하는 유령인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녀의 유령 묘사는 다음과 같다.

“모자도 안 썼어요.” [중략]. “붉디붉은 머리카락에다 오밀조밀한 곱슬 머리의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길고 깨끗한 몸은 보기에도 좋은 형상이었죠. 그리고 다소 괴이한 자그마한 구레나룻은 머리카락만큼 붉었지만, 눈썹은 다소 검은 편이었고, 특히나 활 모양으로 굽어 있어 마음대로 움직이는 듯이 보였죠. 눈매는 날카롭고 이상했어요. 끔찍하긴 했지만, 난 그 눈이 다소 작고 매우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요. 입은 넓고 입술은 가늘었어요. 게다가 자그마한 구레나룻만 제외하고는 꽤나 말

17)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 51. 최경도 67쪽.

끔히 면도를 했던데요. 그 사람은 마치 배우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중략]. 그 사람은 키가 크고 활동적이며 몸이 깨끗했어요. [중략]. 하지만 절대로, 아니 절대로! 신사는 아니었죠.” [중략].

부인의 자세하는 모습이 눈에 뵈지경이었다. “그런데 잘 생겼어요?”

나는 그녀를 돕는 법을 알았다. “놀랄 만큼 요.”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요?”

“누군가의 옷을 걸쳤어요. 깔끔하긴 했지만 자기 옷은 아니더군요.”

부인은 갑자기 숨이 막힌 듯 단언적인 신음을 뱉었다. “그건 주인공의 옷이에요!”

나는 다그쳐 물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알아요?”

부인은 한 순간 주저하다. “퀀트예요!”라고 외쳤다.¹⁸⁾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가정교사는 자신이 목격한 유령의 인상착의를 그로우스 부인에게 말했는데, 그로우스 부인은 그녀가 말하는 인상착의를 듣고 그가 퀀트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교사가 진짜 퀀트의 유령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좀 성급한 결론이 될 것이다.

레너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에서는 인상과 성격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론이 대단한 흥미를 끌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은 스위스의 목사인 요한 카스파 라바터가 주장한 학설인데, 이 학설은 잡지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소설가들은 이 학설에 대단한 흥미를 보였는데, 이 학설은 특히 1770년대 초에서부터 1880년대 사이에 아주 인기가 높았다. 그 후에는 이 학설이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유로 사이비 학설로 판명됐다.¹⁹⁾ 우리는 가정교사의 묘사에 나오는 머리카락 색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세기의 소설가들은 머리카락 색깔에 관심이 많았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대단히 착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극히 악한 사람으로 묘사됐는데, 대체적으로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Esau)가 이런 인물인데 그는 육욕(肉慾)의 죄에 빠져 한 그릇의 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기도 한 인물이다. 또한 예수를 판 유다와 사탄 등은 모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인물들로 여겨진다.²⁰⁾ 이렇게 볼 때, 퀀트는 이러한 악인의 스테레오타입인 셈이며,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무의식에 악인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붉은 머리를 한 인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정교사가 본 것으로 묘사한 유령이 붉은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별로 이

18) James, *The Turn of the Screw*, pp. 46-7. 최경도 58-9쪽.

19) Renner, p. 228.

20) Renner, p. 230.

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가정교사의 이런 묘사를 듣고 그것이 쿤트라고 지적하는 그로우스 부인의 확인 또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교사가 유령을 보고 그의 모습을 그로우스 부인에게 말했는데, 부인이 그것이 쿤트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 그것은 가정교사가 범죄형의 인물에 대한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무의식에 근거한 유령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쿤트가 이런 범죄형 인물의 모습과 거의 가까운 모습과 행동을 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정교사가 묘사한 유령의 모습과 그로우스 부인이 보아 왔던 쿤트의 모습이 겹치게 된 것이다.

가정교사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녀를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처녀로 엄격하게 교육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여성에 대한 가정교육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성에 대한 교육이 핵심을 이룬다. 이런 교육에서는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따르면 혼전 여성은 순결이 절대적으로 강조되었으며, 결혼한 후에는 어머니로서의 자식들에 대한 희생과 봉사가 강조되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여성의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쾌락은 그것을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 있었다. 여성은 단지 자식을 생산하고 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이 유일무이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교육은 그녀가 대리모인 가정교사로서 마일스와 플로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그녀는 전형적인 양가집 처녀로서 "선량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헌신적이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섬세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인 셈이다.²¹⁾

또한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를 철저히 신봉한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이성애(異性愛) 중심적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금기시된다. 따라서 그녀의 개인적인 성적 욕망이 억압되는 것과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무의식에 축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훌륭한 덕목으로 여기는 이성애적인 행동 양식은 장려되는 반면, 동성애적인 측면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단지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주인에 대해 지나치게 일변도적인 이성애적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결벽증을 보이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융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는 충분한 개성화(個性化)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개성화란 인간이 "통합적이고 분리되지 않으며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21) Beidler, "The Governess and the Ghosts," p. 96.

것"을 의미한다.²²⁾ 그러나 개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신념으로 여기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보존하려 하지만 혐오하는 가치들은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가정교사의 경우 그녀는 이성애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혐오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들을 옴은 그림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때 퀴트와 미스 제설은 가정교사가 무의식 속에서 억압하고 있는 혐오스런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정교사의 그림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과 아이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신(分身, double, *Doppelgänger*)의 개념을 이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마클리는 이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임스의 『나사의 조임』에 등장하는 유명인 피터 퀴트와 미스 제설 또한 마일스와 플로라라는 두 어린이의 분신이다. [이들의 이러한 관계는] 아이들과 유명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 관계의 특이한 특성을 잘 드러낸다.²³⁾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퀴트와 미스 제설이 가정교사의 그림자라면, 마일스와 플로라 또한 가정교사의 현전하는 그림자인 셈이다. 가정교사가 마일스에게 끈질기게 그와 유명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완전한 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개성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 속에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교사의 경우에는 마일스가 죽음으로써 이러한 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가정교사가 경직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또한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여성에 대해 사회 분위기 또한 전반적으로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 Samuels, p. 76.

23) Markley, p. 199.

6.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를 둘러싼 사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소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설이 출간됐을 당시 대단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동성애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 소설의 배경 지식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와일드와 알프레드("더글러스") 경 사이의 동성애적인 관계에 연유한다.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891년 초여름이었다. 당시 더글러스는 24세의 나이로 미성년자는 아니었다. 그는 와일드의 열렬한 팬으로 와일드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아홉 번내지는 열네 번쯤 읽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와일드는 더글러스보다 16세가 연상인 40세였다. 더글러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명의 남자 아이들과 동성애 관계를 가져 1892년 봄에는 행위 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더글러스의 아버지인 퀸스베리 후작(1844-1900)은 와일드와 더글러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 퀸스베리 후작은 와일드가 쓴 연극 『진지함의 중요성』이 상연되는 것을 저지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1895년 2월 18일에 와일드가 회원으로 있는 클럽에 "남색자(男色者) 행위를 하는 오스카 와일드에게"라고 명함에 써 이를 와일드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 당시 동성애 행위는 영국에서는 불법이었다.

와일드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몇 가지의 선택 가능한 대처 방안이 있었다. 퀸스베리 후작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와일드로 하여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와일드는 절친한 친구인 로버트 로스에게 편지하여 그 자신이 후작을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로스는 명함을 묵살할 것을 권고하면서, 와일드에게 영국을 떠나 프랑스로 가 얼마간 있으면 사건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드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후작이 유포시킨 소문이 사실이라는 점이었다. 공식적으로 써서 공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는 후작이 퍼뜨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변호사를 설득했다. 와일드는 막판에 명예훼손 고소를 취할 생각도 했으나, 아버지와와의 사이가 나쁜 더글러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형사 처벌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1895년 3월 3일에 열렸다. 재판은 와일드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와일드가 고소를 취하고 해외로 도피할 것을 종용했다. 로스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와일드는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재판은 같은 해 4월 26일에 열렸다. 이 재판의 하일라이트는 더글러스가 쓴 〈두 연인〉이라는 시였다. 이 시는 “나는 그 이름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애인이다”로 끝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오스카에게 묻자 그는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린 사내 애 사이의 고상한 애정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애정은 미켈란젤로와 셰익스피어에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는 이런 애정이 많은 오해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세 번째 재판은 같은 해 5월 22일이 개정됐다. 이번에도 와일드의 친구들은 그에게 해의 도피를 권했으나 와일드는 이를 묵살했다. 와일드는 이번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의 중노동이 선고됐다. 와일드의 동성에 재판은 당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와일드의 재판(1895)과 『나사의 조임』의 출간(1898) 사이에는 불과 3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7. 헨리 제임스의 동성애적인 성향²⁴⁾

제임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 그가 결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전에는 그가 자신의 예술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할 시간과 정력이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그가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이러한 사실은 「생도」라는 단편에 등장하는 펨버튼과 모건 모린 사이의 동성애 선정적인 클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를 동성애적으로 보는 근본적인 계기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그의 감수성이 여성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의 친구인 네이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제임스)는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보는 것처럼 여자들을 보는 듯했다. 여자들은 서로를 인격체로 보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여자로 보기 때문이다. 여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성(性)은 [중략] 제임스에게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 아니었다.”²⁵⁾

제임스의 편지에는 그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그는 1890년에 유럽에서 모턴 플러튼이라는 미국의 신문기자를 만났다. 제임스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소년”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소년”²⁶⁾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서 제

24) Beidler, “Introduction,” pp. 8-9.

25) Edel, p. 234.

26) Kaplan, p. 407.

임스가 그에게 동성애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임스는 또한 플러튼에게 자기 집에 잠깐 들르기를 원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대는 아름다워”²⁷⁾ 라고 쓰기도 했다. 아름다다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찬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같은 표현은 제임스가 플러튼을 동성애적으로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제임스는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육체적으로나 성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임스가 『나사의 조임』에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가 궁금하다. (바이들러는 킨트와 마일스와의 관계가 동성애적이지 아니며, 마일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원인은 동성애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를 강력히 부인한다).²⁸⁾ 물론 바이들러의 이런 견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유에 속한다.

어떤 작가가 동성애자일 경우, 그가 동성애를 자신의 작품에서 다룬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정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옹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임스의 경우는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두둔할 수는 없다.

제임스가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성적체성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속으로는 동성애를 선호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비난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가 『나사의 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소설은 모호함 그 자체인데, 이 소설이 이처럼 모호한 것은 그가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일스가 퇴학당한 이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가 퇴학 처분 당한 이유가 동성애적인 사건과 연계된 것이 아닌지 추측만 할 뿐이다. (물론 바이들러는 이를 부인한다). 이 소설은 출간된 지 100여년이 지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의 관심의 대상이며, 길지 않은 이 소설에 대해 많은 비평 논문이 써지는 이유는 이 소설이 이처럼 모호한 것이 그 한 원인일 수도 있다.

27) Kaplan, p. 409.

28) Beidler, “Introduction,” p. 9.

8. 나가는 말

헨리 제임스가 19세기 말에 쓴 길지 않은 소설 『나사의 조임』은 놀랍게도 100여 년이 넘도록 독자의 관심 속에 굳건히 자리한 소설이다. 제임스는 많은 장편을 썼지만, 어느 다른 장편 소설보다도 이 소설이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소설로 자리매김된 것은 우리의 궁금증을 더해준다. 이 소설은 출판 당시에는 피기 소설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령의 실재에 대한 믿음이 열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비평적 접근이 가능한 작품이 된 것이 이 소설의 생명력을 오래 가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접근법 중에서 필자가 여기서 시도한 것은 융의 심리 이론을 원용한 접근법이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하나의 문학 텍스트에 대해 많은 비평적 접근이 원용될 경우, 이러한 문학 텍스트는 비평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나사의 조임』일 것이다. 이 소설 텍스트는 수많은 접근법에 의해 읽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소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상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어느 하나의 문학 텍스트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이 근본적으로 모호한 텍스트라는 사실은 한 편으로는 이 소설의 의미가 확정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 소설 텍스트의 이 같은 불확정성은 오히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에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셈이다. 특히 융의 심리학 이론에 의한 이 소설 읽기 전략은 이제까지의 많은 접근법에 의해 밝혀진 것들을 수용하면서 이를 넘어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Adams, Hazard, et al., eds. *Critical Theory Since 1965*. Tallahassee, FL: FL State UP, 1986.
- Althusser, Louis.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Adams, pp. 239-250.
- Beidler, Peter G. "Introduction: Biographical and Historical Contexts." In James, pp. 3-19.
- Beidler, Peter G. "The Governess and the Ghosts." *PMLA*, Vol. 100, No. 1. (Jan. 1985), pp. 96-97.

- Booth, Wayne C. "‘He began to read to our hushed little circle’: Are We Blessed or Cursed by Our Life with *The Turn of the Screw*?" In James, pp. 163-178.
- Eagleton, Terry.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UK: Basil Blackwell, 1983.
- Edel, Leon. *Henry James: A Life*. New York: Harper & Row, 1985.
- Hoeveler, Diane Long, et al., eds. *Approaches to Teaching Gothic Fiction: The British and American Traditions*. New York: The MLA, 2003.
- James, Henry. *The Turn of the Screw*. Ed. Peter G. Beidler. 1st ed. Boston: Bedford, 1995.
- Kaplan, Fred. *Henry James: The Imagination of Genius*. New York: Morrow, 1992.
- Markley, A. A. "Teaching the Doppelgänger in American Gothic Fiction: Poe and James." In Hoeveler, pp. 196-201.
- Renner, Stanley. "‘Red hair, very red, close-curling’: Sexual Hysteria, Physiognomical Bogeymen, and the ‘Ghosts’ in *The Turn of the Screw*." In James, pp. 223-241.
- Samuels, Andrew, et al. *A Critical Dictionary of Jungian 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3.
- Willen, Gerald, ed. *A Casebook on Henry James’s The Turn of the Screw*. New York: Crowell, 1960.
- Wilson, Edmund. "The Ambiguity of Henry James." In Willen, pp. 115-153.
- 최경도[번역]. 『나사의 회전』. 서울: 민음사, 2006.

ABSTRACT

A Strategy for Reading *The Turn of the Screw*

Chong-Ho Lee

Henry James was a prolific writer of many full-length novels. It is, however, an interesting phenomenon that his novella, *The Turn of the Screw*, outshines almost all his novels, attracting many readers and inviting diverse kinds of interpretations. One of the reasons why this novella has been so popular with readers is that it has remained “a chameleon text,” and “indeed, *The Turn of the Screw* has probably been discussed more than any other modern story,” as Booth pointed out.

When it was first published in 1898, it was generally interpreted as a gothic story of ghosts. In those days the existence of ghosts was believed by the general populace. As time went by, and the general public no longer believed the existence of supernatural beings, different kinds of approaches have been applied in reading this story.

One of the main curre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story would be that of Jungian reading. According to Jung, a fully matured individual would have achieved individuation by transcending the binary opposition of good and evil. The governess of this story has yet to achieve individuation, as a product of strict Victorian patriarchal family education. The ghosts of Peter Quint and Miss Jessel, therefore, could be the projections of her own shadows. We may also conjecture that James would have a homosexual orientation, and that his sexual orientation may have been a factor in making the descriptions in the story so ambiguous.

Key Words: ISAs, interpellation, governess, homosexuality, pedophilia, individuation